

전남 3곳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재활용 가능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 소형어선 건조 영암·목포·여수 일원...전남, 4번째 규제자유특구 유치

전남 영암·목포·여수 일원이 친환경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받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2019년 e-모빌리티(목포, 신안 압해대교, 영광군 대마전기차산업단지, 영광읍 일원)과 에너지신산업(나주시 일원), 2022년 개조 전기차(영암, 목포, 해남 일원)에 이

어서 4번째로 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신규),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신규), 부산 불특정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추가), 전북

탄소복합재 탈부착수소용기 모듈(추가) 등 신규 및 추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난 2021년부터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에서는 전체 소형어선 중 96%를 차지하는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유해물질 발생이 없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로 어선을 건조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국 동력어선 96%가 FRP로 제작되고 있으며, FRP는 인체 유해물질인 비산이 발생해 무단방치나 폐기 시 환경 오염 유발된다. 전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는 향후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어선용 HDPE 소재 및 판재를 개발해 4.99t, 7.93t, 9.77t 등 3종에 대해 모두 6척의 선형, 설계, 건조 및 구조 안전성 검사를 통해 HDPE 어선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해외에서는 HOPE 소재가 순찰선, 해경구조정, 도선선, 레저선 등으로 상용화돼 있고, 국내에서도 고속단정과 레저선박으로 기술 및 건조능

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어선에 대한 HDPE 소재 구조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또 전남도와 함께 추가 특구 지정을 위해 생분해성 페플라스틱 자원화, 선박용 DME(Dimethyl-ether) 연료 실증 등 신규 특구 과제를 발굴해 규제자유특구에 신청할 예정이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가 지역 내 혁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01@kwangju.co.kr



"나무처럼 글 읽는 습관도 키워요" 올해 첫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도서관의 날을 맞아 1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나무화분에 자신이 좋아하는 책과 글귀 등을 써 붙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특수목적 전기차' 생태계 조성 150억 투입

6개 분야 중소·중견기업 모집

광주시에 특수목적 전기차(EV) 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5년동안 총 150억원을 투입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서남본부) 주관으로 저속 특수목적 전기구동 차량을 위한 '수평적 EV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단계 사업을 종료하고, 올해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됐다. 2년간 진행될 1단계 사업에서는 사업비 51억원(국비 39억원·시비 12억원)을 투입해 시작차 제작 3건, 시험·평가 29건 등의 총 161건의 기업지원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수혜기업의 매출 930억

원 증가, 신규고용 212명 창출, R&D 투자 35억원 증가 등 특수목적 전기차산업의 육성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올해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작차 제작 ▲독자기술 부품개발 ▲공용부품 확대 ▲플랫폼 개발 활용 ▲시험·평가 ▲인증대응 등 6개 분야에 대한 수혜기업을 모집해 총 31건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주관기관이 보유한 차량 플랫폼을 개방해 특수목적 전기차 신규 개발을 위한 설계를 지원하고, 다양한 특수목적 전기차를 제작하기 위한 시작차 제작 지원에 나선다. 또한, 지역 기업이 수입 의존 부품 또는 차량 맞춤형 부품 등을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독자기술

부품 및 공용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부품 성능 확보와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평가, 인증 대응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특수목적 전기차, 적용부품 및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며, 자격 심사와 평가를 통해 수혜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 희망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같은 기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본부에서 받는다. 안길진 기반산업과장은 "광주지역의 특수목적 전기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中企 의료기기 해외 진출 본격화

치과생체흡수성소재부품개발 145억 투입...6300만달러 수출계약

광주시와 지역 대학, 연구 기관이 손을 잡고 중소기업 의료기기 해외 진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치과생체흡수성소재부품중소파트너 지원사업'에 선정돼 광주지역 의료기기 중소기업 116개사 총 416건을 맞춤형 지원해 글로벌 인허가 획득 8건, 국내 품목허가 4건, 수출계약 6300만달러(743억원 상당) 등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치과생체흡수성소재부품중소파트너 지원사업'은 광주시와 산자부가 2018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145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의료기기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및 고도화, 인허가 획득, 임상 마케팅, 해외전시회 지원까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수출 주도형 글로벌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글로벌 비임상 실증센터(생체재료개발센터)를 구축하고, ▲글로벌 인허가 획득 8건 ▲국내 품목허가 4건 ▲수출계약 6300만달러(한화 743억원 상당) 등 실적을 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된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는 글로벌 비임상 실증센터로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의료 현장에서 실제 사용자(의료인)의 직접 사용을 통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 및 동등성, 우월성 등 제품 검증으로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국내외 의료기관 보급 및 시장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사업지원을 통해 식약처 품목허가를 획득한 광주기업 ㈜티디엠, 21세기메디칼㈜, ㈜휴엔스 바이오 3개 업체의 제품 9종(치과 및 정형외과용 의료기기)은 국내 190여개 병원에 납품되는 성과까지 내고 있다. 이 사업에는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센터장 강성수)와 (사)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재)광주테크노파크, 조선대학교가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쿠보텍, ㈜김즈메드, 힐링스, 티비엠㈜ 등 관련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모태로 ▲디지털 연계 흡수성 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기반 구축 ▲바이오인터페이스 인체 이식형 생체흡수성 의료기기 실증 기반 구축 ▲웨어이징 휴먼헬스케어 벨리 조성 등 호남을 의료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혁신의료제품 수출 활성화와 모델 창출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오동교 광주시 산업혁신성장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광주시가 생체흡수성 의료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치과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안과 등 분야로 확대해 광주가 생체흡수성소재분야 대한민국 최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신청

광주시는 12일 "미래 자동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전남도와 함께 민선 8기 1호 상생협력 과제로 골몰여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가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청을 포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지역사회 여론 등을 감안해 신청을 결정했다. 광주시는 특히 반도체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는 평가 기준·위원·관점 등이 전혀 다른 별개 공모라는 산업부 설명에 따라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에 선정된다 해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영향

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15일 후보지로 지정된 미래차 국가산단, 기존 빛그린 국가산단과 진곡산단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배터리 등 미래 차 산업 분야를 집중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내용을 신청서에 담았다. 광주 자동차산업은 지역 제조업 매출의 43.1%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산업 구조가 내연 기관차로 구성돼 미래 차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승수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승수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차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